

## Session 2- No. 5

**퇴행성 슬관절염과 반월상 연골 아탈구의 상관 관계**

포천중문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김재화 · 이윤석 · 이동훈 · 정주환

**목 적**

슬관절은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호발하는 관절중의 하나이며 고연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으로 전세계적인 고령화추세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60세 이상에서는 약 25%의 환자가 동통과 관절 운동장애를 동반하고 있다. 골관절염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초자연골과 활액막, 골조직에서 파괴와 재생이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이차적 염증반응의 결과로 동통, 부종, 관절 운동 제한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유발 요인으로는 나이, 외상, 직업, 운동, 성별과 인종, 유전적인 요인, 비만, 식습관, 골밀도 등이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반월상 연골의 아탈구가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5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슬관절 동통으로 본원에서 진료 받은 1400명의 환자 중 골절, 인대손상, 급성 반월상 연골파열로 진단된 환자를 제외한 156명을 대상으로 성별, 나이, 내외측 반월상 연골에서의 발생빈도, 반월상 연골 아탈구, 연골 연화증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통계학적으로 분석하였다.

**결 과**

연구 대상에 포함된 총 156명중 자기공명영상에서 확인된 연골연화증은 총 74례로 남자에서 21례(평균나이 54세), 여자 53례(평균나이 53세)의 분포를 보였다. 반월상 연골 아탈구는 총 74례로 내측 반월상 연골에서 65례(남자 10명 평균나이 57세, 여자 55명 평균나이 57세), 외측 반월상 연골에서 7례(남자 4명 평균나이 47세, 여자 3명 평균나이 56세), 그리고 양측을 침범한 경우는 총 2례로 남녀 각각 1명의 분포를 보였다. 이중 통계학적 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보면 연골연화증은 나이와 내측반월상연골의 아탈구 정도와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 $P<0.05$ ). 연골 연화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반월상 연골 아탈구 정도로 분석되었다( $P<0.05$ ).

## 결 론

반월상 연골 아탈구는 연골 연화증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인자로서, 즉 퇴행성 변화의 전구 단계 중 한 인자로 생각되므로 아탈구를 정복할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색인 단어: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반월상 연골 아탈구, 연골연화증